韓國心理學會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993, Vol. 12. No. 1, 1-18

자전적 기억 : 기억연구의 새로운 과제

김 수 연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본 논문에서는 자전적 기억 연구의 개관을 통하여 기억대상에 특수하게 작용하는 기억과정의 법칙 및 기억의 주체인 사람, 삶과의 관련성 속에서 기억연구의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정보처리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주제들 (기억형태의 분류체계, 결정요인, 전생애에 걸친 파지양상, 도식화 과정, 기억내용의 위계적 조직화 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자전적 기억에 수반되는 의식경험, 자전적 기억의 재구성요인으로서 자기와 세계에 대한 주관적 이론 및 전생애 발달의 맥락속에서 파지기간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자신의 과거 인생사에 대한 회상이 지니는 의미를 정보처리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인생주제와 자아정체의 상호관계 및 자기보존동기와 관련지워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자전적 기억 연구의 의의

실험심리학사를 돌이켜 볼 때, Ebbinghaus 이후 기억연구의 밑바탕에는 기억과정 그 자체의 일반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깔려 있다. 이러한 노력 뒤에는 기억의 대상(또는 내용)과 분리해서 기억과정 자체의 작용원리 를 파악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잡고 있다. 나아가 기억 대상의 의미적 복잡성이 기억 자체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모든 개인차를 배제할 수 있고 또 실험적으로 통제가능한 자극재료, 심지어는 무의미 철자까지도 기억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기억 연구에 있어서 기억내용과는 독립된, 보편적 기억과정 자체에 대한 관심, 아울러 이론적인 틀 내에서 추론된 가설의 검증을 위한 실험의 가설-연역적 방법론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기억 현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탈맥락적인 기억 연구를 낳게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전적 기억연구의 등장이 기억 연구에 던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선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은 과연 기억과정 그 자체의 법칙은 존재하는지, 설령 그것을 발견해 내었다 하더라도 기억내용(대상)에 따라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만약 기억과정 자체가 기억내용과 밀접한 상관을 이루고 있다면, 어떤 특정 내용을 통해 밝혀진 기억법칙은 그 일반화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된다. 그렇게 되면, 예컨데 무의미 철자를 비롯한 인위적이며 미시적인 언어 자극정보의 기억을 통해

입증된 기억법칙을 자기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에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게 된다. 이런 근거에서 기억 대상의 특징에 의해 명명된 자전적 기억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독립된 연구영역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처리 패러다임 내에서의 자전적 기억 연구

실험 심리학 내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연구주제의 하나인 "자전적 기억"은 기억의 대상(또는 내용)의 특성에 의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즉 자전적 기억 연구의 범주에는 자신의 인생사(life event) 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또는 자신의 일상생활(everyday life)에 대한 기억 연구들이 속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억을 연구한다는 것은 실험자가 조작한 인위적 자극정보에 대한 기억을 연구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정보처리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진 자전적 기억연구는 실험심리학의 기억연구와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관찰을 통한 기억과정 자체의 일반법칙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정보처리 패러다임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전적 기억에 대한 연구는 (1) 기억내용의 분류체계 속에서 자전적 기억의 정의, (2) 자전적 기억의 결정 요소, (3) 전생애에 걸친 파지 양상, (4) 매일 반복되는 경험의 저장방식, (5) 자전적 기억내용의 위계적 조직화 등의 주제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고: Cohen(1989)의 연구질문 분류). 이러한 연구주제들은 이미 기억을 조망하는 개념틀로서 정보처리적 접근의 기본가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자전적 기억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전적 기억이라는 명칭 자체가 기억내용 또는 기억대상의 특성에 의해 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자전적 기억을 정의하는 출발점이 된다. 예컨대 Brewer(1986)는 기억내용의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그 속에서 자전적 기억과 다른 종류의 기억과의 차이점 및 관계성을 규명하는데 촛점을 맞추었다. 이 분류체계에 의하면 모든 기억내용은 경험의 획득조건(반복적인가 또는 일회적인가), 표상양식(심상을 수반하는가 또는 무심상인가) 그리고 입력 정보의 자기관련성(자기자신에 관한 것인가 또는 비개인적인 것인가)의 3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진다. 이 때 자전적 기억에는 자기에 관한 모든 정보 중 일회적이거나 반복적인 경험에 대한 심상표상으로서의 개인적인 기억(personal memory), 심상을 수반하지 않는 자전적 사실(autobiographical fact) 및 반복적인 경험으로 획득한 추상적인 자기도식(self-schema) 등이 포함된다. Brewer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예컨대 지난 주말 자신이 낚시하러 갔던 일에 대한 표상이나 낚시활동을 통해 추상화된 자신의 성격특성에 대한 지식은 자전적 기억에 속하지만 낚시법 자체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은 의미론적 기억(semantic memory)에 속한다. 그러나, 만약 정보의 자기 관련성이라는 기준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정보획득의 맥락에까지 적용한다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는 모두 자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Larsen(1992)은 표상된 정보를 촛점과 배경 - 핵사건(core event)과 맥락 - 으로 나누어, 촛점이 되는 핵사건이 개인적인 것일 경우에만 자전적 기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핵 사건은 비개인적이지만 그것을 개인적 맥락에서 획득했을 경우에는 이

러한 기억의 형태를 담화적 기억(narrative memory)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섬광 기억(flashbulb memory; Brown & Kulik, 1977)이라고 하는, 정서적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비개인적 목표정보(예, 박 대통령의 죽음)를 중심으로 자신의 주변환경에 대한 세부특징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사진과 같은 기억이라도 자전적 기억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들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자신이 어떤 실험의 피험자로 참여한 일에 대하여 회상할 때, 실험에서 제시된 무의미 철자에 대한 기억은 자기 자신과는 무관한 내용으로서 특정 장소 및 시간에서 일회적으로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인 삽화적 기억(episodic memory)에 속한다. 그러나 실험상황, 예컨대 실험자나 실험 분위기에 대한 자기의 느낌이나 태도 등을 기억하는 것은 자전적 기억이 되며,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일반적인 실험에 대한 지식은 의미론적 기억이 된다. 이처럼 하나의 경험을 회상한다고 할지라도 기억의 촛점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Nigro & Neisser, 1983), 또 경험의 어떤 측면에 촛점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기억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험에 대한 기억에는 여러가지 기억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전적 기억의 내용은, Brewer나 Larsen이 분류한 바와 같은, 입력 정보(data)의 유형에 의해 규정할 수는 없게 된다. 오히려 자전적 기억의 내용은 다원적인 내적 표상의 한 차원으로서 입력 정보를 자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처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입력정보를 자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지금까지의 기억연구에서는 자기참조(self-reference)나 자가생성(self-generation)의 방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이 정보의 파지기간에 미치는 효과가 관심의 촛점이 되었다(Greenwald, 1981). 즉 자기참조나 자가생성의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한 결과, 정보의 파지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이 주목되어 왔다. 예컨데, 타인 (텍스트나 교사 또는 실험자)이 제시한 정교화보다 학습자 스스로가 생성한 정교화가 기억에 더 큰 도움을 주며 (김 수연, 1990), 실생활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 타인을 통하여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보다 더 잘 기억되었다(Thomson, 1985). 특히 긍정적이며 유쾌한 사건인 경우 자가생성효과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Skowronski et al., 1991). 자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이기에 오랜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Rogers, Kuiper 와 Kirker(1977)은 처리수준모형(level-of-processing model, Craik & Lockhart, 1972)에 의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설명은 처리수준모형이 지닌 근본적인 약점인 순환론적인 설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자기참조적 처리가 깊은 수준의 처리라는 것을 기억효과를 통해 입증하면서, 그럼 왜 기억이 잘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이 깊은 수준의 처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자기참조적 처리과정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기억효과를 가져 오는지 설명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자기참조 자체가 깊은 수준의 처리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Kihlstrom과 Cantor 등(1988)은 참조되는 사전 지식의 분화정도에 따라 정보가 얼마나 조직화되느냐가 기억의 주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로 대립된다기보다 보완적으로 보이는 이 두 입장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기참조효과는 결국 정보처리 시 참조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분화되어 정보가 조직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자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정보를 처리하여 생긴 내적 표상의 객관

적 차원 (정보의 파지기간)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참조 결과 생기는 내적 표상의 주관적 차원 (느낌이나 태도 등의 의식 경험)의 속성을 짐작하는데는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정보를 처리한 결과 형성되는 내적 표상의 주관적 속성이야말로 자전적 기억을 특징지우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참조나 자가생성으로 인한 내적 표상의 주관적 차원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해답이 정보처리적 접근 내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전적 내용의 회상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자전적 기억을 결정하는 요소들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검증보다도 연관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색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컨데 Rubin과 Kozin(1984)은 가장 생생한 기억 세가지를 기술하게 한 후, 기억된 사건들의 중요도, 놀람정도, 정서수반정도, 생생한 정도, 화제로(머리속으로) 떠올린 빈도등을 자가평정케 하였다. 그 결과 기억의 생생한 정도를 예측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회상자의 연령에 따라 각기 그 설명력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젊은이의 경우 사건자체의 속성(중요도, 감정유발 정도)이 중요한 예언변수인 반면에, 장년의 경우 화제로 떠올린 빈도(연습)가 중요한 예언변수이었다. 회상된 사건의 유형을 보면, 탄생, 죽음, 결혼 등의 전환점을 초래한 주요한 인생사(critical life-event)가 대부분이었다.

전생애에 걸친 파지기간에 따른 파지양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회상하려는 목표정보를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조망할 수 있는 자전적 기억의 특징을 Neisser(1986)는 겹구조(nested structure)라는 용어로써 표현하고 있다. 예컨데, 실험실에서 제시된 언어자극에 대한 기억은 실험에 참여한 경험의 일부분으로, 이는 다시 심리학 개론을 들던 교양학부시절, 더 나아가 대학시절 등으로 계속 확대되는 테두리 속에서 조망된다. 이처럼 기억된 사건의 겹구조를 상정할 때, 어떤 한 사건의 가장 바깥 테두리는 인생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모든 기억의 맥락은 한 개인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Conway, 1991). 이러한 점에서 파지기간을 전생애에 걸친 기간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기억이 갖는 의미나 기능을 한 개인의 전체 삶 속에서 추론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연구의 예를 들어 보면, Rubin, Wetzler,& Nebes(1986) 등은 단어 단서법(word-cueing method)을 사용하여 전생애에 걸친 파지기간에 따른 파지양상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단어목록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연상된 과거 경험이 보고되며, 경험시기가 추후 기록되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피험자가 회상한 사건들이 시기별로 구성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현 회상시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억되는 내용이 감소하는 경향(최신성 효과)이 나타났다. 그러나, 10세-30세 사이에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회상의 절정"을 보였다. Fitzgerald 와 Lawrence(1984)는 시간에 따른 파지양상의 변화에 대하여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인을 피험자로 사용하였을 때 20년전의 기억내용이나 60년전의 기억내용이나 그 양에 있어서 거의 동등하였다. Holding등(1986)은 생생하게 기억되는 경험들의 시기를 추정하게 하는 연대추정법(dating method)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Rubin등(1986)과는 반대현상, 즉 생애의 초반부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회상되는 초두성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상반되는 현상은 연구방법에 따라 피험자의 회상전략이 달

라짐으로써 생긴 것일 수도 있고, 피험자의 연령에 따른 파지기간의 차이에 의해 야기된 것일 수도 있다. 자전적 기억의 양과 정확도에 시간적 변수가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나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적 기억에 있어서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시간변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시간변수는 과연 어떤 다른 변수들과 공변하는 것인가가 먼저 밝혀져야 하며, 공변하는 변수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상의 양과 파지기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생산적인 가설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매일 반복되는 경험은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가?

Linton(1982)은 일기법(diary method)을 이용하여 6년동안 매일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사건을 각각 카드에 기록하고, 누적된 카드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사건에 대한 자극단서를 읽고 그 사건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두 종류의 망각현상을 발견하였다: 어떤 일회적인 사건은 완전히 잊혀지기도 했지만, 사건이 반복될 경우에는 사건의 골간이 되는 내용(generic composite memories)만 남고 세부사항은 마치 걸러져 나가는 형태로 점차 잊혀져 갔다. 이러한 후자의 망각형태는 기억의 도식화(schematization) 과정의 산물로 보인다. Barclay (1986)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복되는 경험들이 그 공통핵을 중심으로 점차 축약됨으로써 자기도식(self-schema)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도식은 회상 시에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는 인자로 작용하여 원래의 경험내용을 변형 또는 왜곡시킨다고 보았다. Barclay는 자기도식에 의한 자전적 기억의 재구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재인오류현상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실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고, 한 조건에서는 핵심의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세부사항만을 다소 왜곡시켰고, 다른 조건에서는 핵심의미마저도 완전히 왜곡시켰다. 그런 다음, 왜곡된 내용과 왜곡이 가해지지 않은 원래의 경험내용을 섞어 1년 동안 재인검사를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왜곡된 내용이 원래내용과 의미상 유사할수록 오반응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원래의 경험과 의미상 유사하면, 비록 그 표면특징은 달라도, 자기의 경험인 것처럼 지각하는 의미 유사성 효과(semantic similarity effect)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4 개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Barclay는 다음 두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자전적 기억에서는 경험의 핵심의미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식, 특히 자기도식(self-schema)에 의한 재구성 작용이 일어난다. 둘째, 이런 재구성 작용은 자전적 기억의 정확성에 대한 회의를 자아내지만, 자기 경험의 핵심 의미가 기억 속에서 유지되는 한, 기억된 내용은 진실한 것이다. 첫번째 결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전적 기억의 재구성 요인으로는 자기도식(Markus,1977), 삶의 전개과정의 일관성에 대한 회상자의 암묵적인 이론(implicit theory; Ross & Conway, 1986), 가치관 이나 태도(Read & Rosson, 1982) 등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Barclay의 연구는 비록 자전적 내용을 자극정보로 삼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연구된 기억의 재구성 과정을 입증해 준 것일 뿐, 경험의 핵심의미와 자기도식과의 관계를 규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두번째 결론에서 제시된 자전적 기억의 진실성의 문제는 기억의 새로운 측정과제를 시사한다. 즉, 원래경험의 의미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가가 기억의 준거가 된다면, 기억 대상이 단편적인 것이 아닌 복

잡한 구조를 지닐 경우에 기억의 진실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기억의 대상이 예컨데, 인생사(life history)와 같이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을 경우에 그 핵심의미도 전체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억의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인 의미분석의 틀이 요구된다.

자전적 기억은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보처리적 접근의 대표적 연구책략으로 반응시간 측정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연구논리는 각기 다른 차원을 대표하는 인출단서에 반응하는 시간을 토대로 자전적 기억의 조직화 원리를 추론하는 것이다. Robinson(1976)은 인출단서를 활동, 사물, 정서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조작하여 제시한 결과, 정서차원의 단서에 가장 긴 반응시간이 소요됨을 발견하였다. Reiser, Black, & Abelson(1985) 등은 각본(Script)과 같은 지식구조가 개인적인 기억의 조직화에 작용한다는 가정 하에, 인출단서를 행위(action)와 활동(activities)의 두 수준으로 나누어 조작하였다. 상황특정적인 구체적 활동들(예, 음식점에서 먹다, 안주를 먹다..)에 공통적인 상위수준의 행위(예, 먹다, 앉다..)는 상황특정적 활동단서에 비해 비효과적인 인출단서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통해 Reiser 등은 인출과정의 두 단계를 가정하였다. 즉, 우선 맥락을 정립한 후, 그 맥락 내에서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알려 주는 지표를 발견하여 인출이 이루어진다는 '맥락 + 지표 모형'(context-plus-index model)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자전적 기억은 적정수준의 상황특정성을 나타내는 활동들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Conway와 Bekerian(1987)의 연구에서는 인생의 시기별로 제시한 단서에 회상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전적 내용을 기억하는데 생애사에 대한 지식(biographical knowledge)이 중요한 조직화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Strube, 1985; Strube & Weinert, 1987). 이상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인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단서, 구체적인 상황단서, 인생의 시기별 단서들을 중심으로, 자전적 기억의 내용범주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하여 Linton(1986)의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살펴 보고자 한다. Linton은 단서회상이나 자유회상의 기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기억을 12년간 관찰하면서 기억내용을 분류하고 분류된 범주들간의 위계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자전적 기억의 구조를 이끌어 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가설-발견적인 귀납적 연구방법의 결과로 유도된 자전적 기억의 위계적 구조가 그림 1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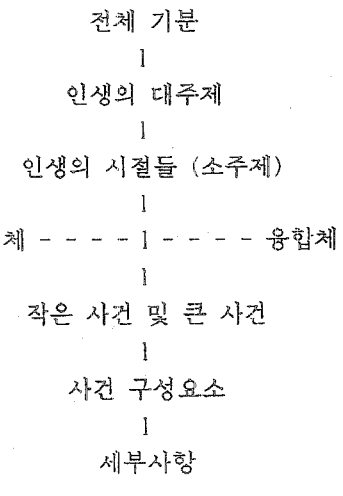

그림 1. 자전적 기억의 위계적 구조
(Linton, 1986)

자전적 기억의 구조에서 전체느낌(mood tone)

이 가장 상위수준의 범주로서 설정된 것은, 살면서 겪은 경험들이 결국 정서의 차원에서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의 차원은 너무도 은근하고(implicit) 포괄적이어서, Linto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회상해 내야할 사건의 독특성(distinctiveness)을 촉발시키지 못하므로 기억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비효과적인 인출단서가 된다. 전체느낌의 범주보다도 좀 더 분명하게 자전적 기억의 구조적인 획을 그어주는 범주인 주제(themes)는 인생에 일관되게 흐르는 방향성이나 삶을 하나의 통일체로 묶어주는 맥을 일컫는다 (예, 일과 사랑, 친밀한 인간관계, 성취 등). 이러한 인생의 주제는 여러 시절들(extendures)로 나뉘어 진다. 시절은 소주제(subtheme)로 엮어질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의 경험들로 이루어 진다(예, 학위논문 쓰던 시절, 신혼시절, 첫 출산 이후 등). 이 범주는 우리의 인생사에 관한 지식(biographical knowledge)과 더불어 인생을 구획하고 정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critical life event)과 함께 회상 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어떤 한 시절을 특징지우는 선명하게 회상되는 큰 사건과 작은 사건들 (예, 입학허가서를 받던 날, 지도교수를 찾던 일, 논문심사를 받던 일 등)은 발단, 갈등, 해결, 결말 등의 요소를 갖춘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가 된다. 이 외에 위계적 구조의 범주들로서, 고립체(isolates)는 인생의 주제와 논리적 연결을 갖지 못한 채 떠도는 기억 내용이며 (예, 작년 여름의 제주도 여행), 융합체(amalgams)는 사건과 늘 함께 붙어다니며 연상되는 기억 내용으로 그 자체로는 논리적 연결이 결여되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와해되기 쉬운 특징을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 본 자전적 기억의 내용범주들 간의 위계적 관계에 대한 Linton의 견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한 개인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주제 및 이를 반영하는 인생의 시절들이 자전적 기억의 조직화 원리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각 개인의 인생 주제가 자전적 기억의 조직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가정이 시사하는 점은, 기억 과정 및 기억 내용이 기억하는 사람의 특성과 그의 실제 삶의 맥락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Kihlstrom & Kantor, 1981; Gergen & Gergen, 1988). 기억과 성격 및 실제 삶간의 연관성은 기억과정 자체의 작용원리만을 강조하던 정보처리 패러다임 내에서는 간과되어 온 문제이다.

2.1 종합논의: 자전적 기억 연구의 과제

정보처리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진 자전적 기억의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전적 기억의 연구과제를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자전적 기억에 수반되는 주관적인 의식경험

어떤 경험을 회상할 경우, 거기에는 여러가지의 기억 형태(의미론적 기억, 삽화적 기억, 자전적 기억)가 다원적으로 복합되어 있다. 따라서 회상의 촛점이 되는 내용에 따라 기억의 형태가 달리 분류될 수 있다. 즉, Brewer(1986)나 Larsen(1992)의 분류체계와 같이, 입력정보 자체의 자기관련성에 의거해서는 자전적 기억의 특징을 규명할 수 없다. 자전적 기억의 특징은 정보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과거의 느낌이나 의지, 태도 등을 재경험하는 데 있다. Linton (1986)의 위계구조에서 보았듯이 자전적 기억의 밑바탕에는 느낌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의식경험의 차원이 깔려 있다. 주관적인 의식경험은 기억하면서 무엇이 재경험되며, 이에 대해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가를 중심으로 파악된다. 따라

서, 자전적 기억에 수반되는 주관적인 의식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자전적 기억의 실체를 밝히는 관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행동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정보처리 패러다임 내에서는 내적 표상의 주관적인 차원을 기억의 측정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이는 실험논리에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이다. 즉 기억에 대한 실험연구들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데만 촛점을 맞출 뿐, 피설명체(explanandum)가 되는 종속변인인 기억은 학계에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기존의 측정방법에 의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억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별 이의 없이 재인이나 회상 행동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측정배경에는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한 재인이나 회상 행동은 기억의 모든 차원을 반영해 줄 수 있다는 신념이 자리잡고 있다. 즉, 의식속에서 정보나 지식을 표상할 수 있다면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관적인 기억의 경험도 수반된다고 보는, 지식표상과 행동 및 경험 사이의 상응성에 대한 신념(the doctrin of concordance, Tulving, 1989)이 기저에 깔려 있다. 그러나 Claparède(1911)에 의해서 발견된 기억상실증 환자의 특성 중, 살아오면서 겪은 사건들을 표상하여 회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은 기억의 지식표상과 행동 및 경험이 늘 상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전적 기억의 경우 객관적인 행동의 차원에서 회상 또는 재인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함께, 예컨데 자기의 것이라는 느낌("the feeling of me-ness")의 주관적 경험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측정차원으로서 대두된다. 그러나 자전적 기억의 주관적 경험의 측정차원 및 방안에 대한 모색은, 인과적 설명을 위하여 행동을 통한 객관적 관찰의 방법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실험심리학의 패러다임 내에서는 해답을 구할 수 없으며, 현상학적 방법론(Valle, King & Halling, 1989; Giorgi, 1989)과 같은 대안적 연구 방법론을 요구한다.

전생애 발달의 맥락속에서 파지기간이 갖는 의미

자전적 기억의 경우 파지기간을 전생애에 걸친 기간으로 잡았을 때, 회상자의 연령에 따라 기억의 생생함의 정도를 예측하는 요인들의 설명력이 달라질 뿐 아니라, 파지양상 즉 가장 많이 회상되는 인생의 시점도 달라진다. 자전적 기억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변수는 정보가 장기기억 시스템 자체 내의 작용원리에 의한 변환과정을 겪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전적 기억의 개인 내적 변화과정은, Kelly(1955)의 견해(man-as-scientist view)에 의하면,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이론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에 의하면 개인의 주관적 이론은 일정한 수의 양극차원을 지닌 개념(personal construct)의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개인의 주관적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은 경험의 해석 및 부호화를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기억속에서 과거 경험의 인출을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서 만약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 유실되거나 다른 개념으로 대치되면, 그것에 의해 유지되고 있던 기억내용들은 변형되거나 일단 중단(suspension)된다. 여기서 Kelly는 중단에 의한 망각을 억압에 의한 망각과 구별짓고 있다("Suspension implies that the idea or element of experience is forgotten simply because the person can tolerate no structure within which the idea would have meaning." p. 473). 중단에 의해 잊혀진 내용은 새로운 구조의 출현에 의하여 의미가 부여될 때 언제든지

다시 기억으로 되살아 나는 특징을 지닌다 ("one remembers what is structured and forgets what is unstructured." p.473). 즉 연령에 따라 경험 내용과 경험을 해석하는 관점 즉 주관적 이론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과거 경험이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되며 기억 속에 저장된 경험들이 그 생생함이나 중요도에 있어서 달리 배열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변수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생애적인 발달과정의 맥락 속에서 주관적 이론의 변화과정과 함께 자전적 기억이 조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억의 재구성 요인으로서 자기와 세계에 대한 주관적 이론

실제 경험과 의미상 유사하면 비록 그 표면 특징은 달라도 자기의 경험으로 지각하는 의미 유사성 효과를 통하여, Barclay(1986)는 반복되는 경험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핵으로 요약되는 과정 및 그로 인해 생긴 도식의 재구성 작용을 입증하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Barclay는 반복되는 경험들의 공통핵은 결국 자기도식이라는 결정체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도식은 구체적인 경험에서 일반화된, 추상적인 성격특성으로 요약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자기도식이 정보처리에 기여하는 인지적 경제성은 Markus(1977)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그녀의 실험에서는 어떤 한 성격 특성의 차원(예, 독립-의존)에서 자기도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관련 판단과제에서 자기도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신속하게 반응하였으며 자기관련정보를 훨씬 더 많이 회상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의 형태로 Markus가 가정한 자기도식에는 성격특성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지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관련된 지식은 언제나 성격 특성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적 관계성에 대한 가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좀 더 복잡하게 조직화된 지식의 형태(Groeben 등, 1988)를 상정하는 것이 자전적 기억의 구성 및 재구성에 작용하는 인지적 요인을 밝히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구조

회상된 경험이 그 표면 특징에 있어서는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그 원래의 의미가 유지된다면 진실하다는 Barclay의 주장은, 자전적 기억의 측정 시 의미수준에서의 기억의 진실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이어진다. 언어자극에 대한 기억을 측정하는데도 문자 그대로의 재생(verbatim memory)인가 의미의 재생(paraphrased memory)인가 하는 두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데, 문장에 대한 회상을 의미 수준에서 측정할 경우, 문장을 명제분석한 후, 의미단위로서의 명제 및 명제들간의 관계성이 얼마나 재생되었는가가 관찰된다. 글(text)의 경우에도 역시 글 전체의 의미는 명제들의 구조적인 관계로 분석되며, 이러한 글의 명제구조는 글 회상을 의미수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만약 자전적 기억의 대상이 단편적인 사건(*event*)이 아닌, 예컨데 인생사(life *history*)와 같이 구조적으로 복잡한 것일 때, 기억의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생사의 의미구조에 대한 분석의 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구조의 분석틀로서 인생사 회상의 재구성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 Rumelhart, 1980)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야기문법의 위계구조 상에서 가장 상위범주에 해당하는 주제는 이야기의 핵심 의미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목표-수단 관계 및 인과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조직화 원리로 작용

한다. 따라서 회상된 인생사 속에서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거꾸로 인생주제를 추론해 낼 수 있으며, 이렇게 추론된 인생주제의 차원에서 자전적 기억의 진실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인생주제의 차원에서 자전적 기억의 진실성의 문제는 어떤 점에서 중요해 지는가?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는 회상된 인생사의 주제응집성과 자아정체의 관련성 속에서 자전적 기억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자전적 기억의 의미: 정보처리 패러다임을 넘어서

Neisser(1982)는 "기억: 무엇이 정말 중요한 연구질문인가?"라는 논문에서 지난 과거 백년 동안 실험 심리학 내에서 기억에 관하여 던져진 연구질문들은 너무도 자명한 (심하게 표현하여 "열살짜리도 알 수 있는",p.11) 것이거나 또는 주로 이론적인 관심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답 역시 실제적 유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연구질문은 기억이 실제 삶의 맥락 속에서 지니는 의미와 적응가치를 중심으로 한 문제의식에서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자전적 기억에 대한 연구주제에 접근할 때, 과연 어떤 연구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기억하는 사람 자신 및 그의 삶의 맥락 속에서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야기의 내용틀로서의 인생주제

과거의 어떤 사건이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현재 경험과의 의미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살아온 과정을 회상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자유회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미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의 흐름을 연결하여 하나의 의미 통합체로 만들어 주는 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틀을 텍스트 분석의 관점에서 형식틀(superstructure)과 내용틀(macrostructure)로 나누어 볼 수 있다 (van Dijk, 1980). 형식틀이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야기로서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를 규정한다. 이들 요소에는 주인공, 배경 정보, 사건의 발단, 해결, 결말 등이 있다. 반면, 내용틀은 형식틀의 각 구성요소를 채우는 내용들이 하나의 의미 통합체가 되기 위한 의미연결관계를 규정한다. 자신의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의미연관을 규정짓는 내용틀은 바로 회상자 자신의 인생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인생사에 대한 회상 시, 이야기의 주제를 중심으로한 응집성(thematic coherence)은 삶에 있어서 커다란 적응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다양한 경험들이 좀 더 포괄적인 주제에 의하여 재조직되고 하나의 통일체를 이룸으로써, 현재의 삶에 연속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며, 이는 나아가 자아의 힘(ego-strength)의 근원이 된다 (Noam, 1988). 이처럼 인생사에 대한 회상이 회상자 자신 및 그의 인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면, 이야기 맥(story line)으로서의 인생주제는 회상자 자신의 내적 중심, 즉 자아정체(ego-identity)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생주제와 자아정체

회상된 인생사의 일관된 의미의 흐름인 이야기 맥은 회상자의 인생 주제에 해당하며, 이는 곧 회상자 자신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인생주제란 무엇이며 회상자의 자아정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생의 주제는 삶의 각 시기마다 부과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각 개인이 설

정한 목표의 형태를 띈다. 이는 또한 현실을 해석하는 틀이 되어서 문제를 정의하는데 기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Conway, 1990 재인용; Csikszentmihalyi & Beattie, 1979). 문제해결의 목표로 드러나는 인생의 주제는 곧 자신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가치나 신념과 일맥상통하며, 가치나 신념에 대한 깊은 관여는 자아정체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그러므로 회상자의 자아정체수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사에 대하여 회상한 이야기의 주제 응집성이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의미 수준에서 기억의 진실성이 의문시 될 수 있다. 자전적 기억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생주제와 자아정체의 관계를 Erickson(1968)의 정체발달론에 기초한 Marcia(1966)의 정체지위(identity status) 분류를 통하여 조명해 볼 수 있다. Marcia는 자기탐색의 위기(crisis)와 가치에 대한 관여(commitment) 유무에 의해 자아정체유형을 4가지 지위로 분류하였다. 즉, 탐색의 위기를 거쳐 안정된 가치체계를 확립한 정체획득(identity achievement) 지위, 자신이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현재 자기탐색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정체유예(moratorium) 지위, 힘겨운 자기탐색의 위기를 생략한 채 기존의 가치 (예, 부모의 가치)에 관여하고 있는 정체폐쇄(foreclosure) 지위, 정체획득의 과제에 아직 직면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기탐색의 위기 및 관여가 모두 결여된 정체분산(diffusion) 지위 등으로 분류하였다. 자아정체의 발달과정은 자기탐색의 과정과 이를 통해 이끌어낸 자기경험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 즉 자기이론의 정립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기탐색과 자기이론의 정립 과정은 환경과 정보처리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동화와 조절과정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Berzonsky, 1988). 자기탐색은 자료주도의 조절과정을, 자기이론의 정립은 개념주도의 동화과정을 반영한다. 즉, 자기이론의 틀에 맞추어 현실경험을 해석하는 가운데 동화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반면, 현실경험의 자료에 기초하여 자기이론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자기이론을 수정하는 가운데 조절작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동화와 조절작용에 의한 자기이론의 활용 및 수정과정이 그림 2에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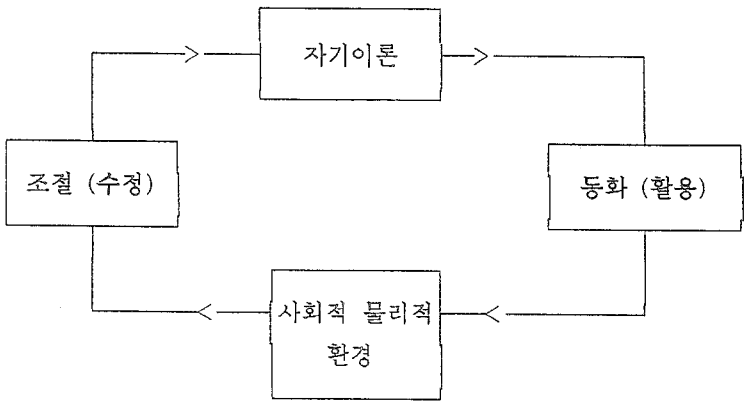

그림 2. 자기이론의 활용 및 수정 과정(Berzonsky,1988)

Berzonsky는 자기이론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동화와 조절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Marcia의 정체지위를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고 있다. 즉 정체획득형과 정체유예형은 자기반성적이고 과학적인 이론가(Self-reflective, scientific personal theorists)로, 정체폐쇄형은 독단적 이론가(Dogmatic personal theorist)로, 그리고 정체분산형은 사후설명 이론가(Ad-hoc personal theorist)로 재분류하고 있다. 자기반성적인 이론가인 정체획득형의 경우, 스스로 확립한 이론을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화작용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체유예의 경우 사회적 환경에서의 경험자료를 토대로 자기이론의 구성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절작용이 우세하게 일어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유형 모두 자기탐색의 위기를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자기반성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이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해방되어 있거나 적어도 자기관점의 위상을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다. 자기반성적 이론가로서 정체획득형이나 유예형에게 공통된 매우 중요한 특징은, 이들 모두 다원화된 관점을 통해 모순되는 정보들을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독단적 이론가로서의 정체폐쇄형은 자기탐색의 노력없이 기존의 신념체계를 그대로 자기이론으로 수용하여 이를 매우 엄격하게 고수하고자 하며, 자기이론을 수정 조절하는데 매우 방어적이다. 그 결과, 정보탐색에 있어서 확증오류를 범하기 쉬운 인지적인 보수주의경향을 띈다. 일종의 규범처럼 작용하는 정체폐쇄형의 자기이론은 Greenwald(1980)가 가정한 전제군주("totalitarian ego")에 비유할 수 있다. 한편, 사후설명 이론가로서의 정체분산형은 자신의 정체에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연기한다. 유일한 자기반성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만 일어난다: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며, 나는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처럼 진정한 자기탐색보다도 자기제시 (self-presentation)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 결과 내적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상황에 따라 자기이론을 수정하는 조절작용이 극대화된다.

이들 네 가지 정체수준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자기반성 및 자기이론의 유무에 따라 자신의 인생사에 대한 회상의 질적 차이와 양적 차이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양적 차이는 회상량을 중심으로, 질적 차이는 주제를 중심으로 도순되는 경험 내용의 발견 및 통합의 정도에서 관찰될 수 있다. 예컨데, 정체발달의 수준에 따른 회상의 양적인 차이는 Neimeyer와 Rareshide(1991)의 실험연구에서 입증이 되었다. 이들은 성격특성을 단서로 회상을 하게 한 결과, 확고한 자기이론 - 정체구조를 소유하고 있는 정체획득형과 폐쇄형은 분산형이나 유예형보다 훨씬 많은 회상량을 보였으며 자기관련 정보의 판단과제에서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회상단서로 제시된 성격 특성이 자기지식과 불일치할 경우 폐쇄형이 정보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오히려 분산형이 판단과제에서 가장 느린 반응시간을 보임으로써 불일치 정보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실험연구결과는 자기도식의 유무에 따른 회상량 및 자기판단속도의 차이를 입증한 연구(Markus, 1977)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즉, 회상량이나 자기판단속도에 있어서 정체획득형과 폐쇄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기억의 양적 측정은 정체획득형과 폐쇄형을 구분짓는 자기탐색의 과정을 변별해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기탐색이나 자기반성의 과정은 회상의 질적 특

성 즉 주제를 중심으로 모순되는 내용의 발견 및 통합의 정도에 의해서만이 변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정체유형의 특징에 따라 회상의 주제응집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를 가정해 보고자 한다. 정체분산형에게는 자기나름의 확고한 가치기준이나 이론이 서있지 않으므로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거 경험의 의미가 그대로 재생되었는가 하는 점도 의문시되며, 일관된 인생주제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의미있는 전체로 엮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인생사에 대한 회상은 단편적인 사건의 나열에 불과하다. 한편, 정체유예형의 경우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기억내용들을 하나의 의미있는 통일체로 묶기 위한 의미해석의 중심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자기 인생사에 대한 회상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정체획득이나 정체폐쇄의 경우 어떤 일정한 가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응집성은 두 유형 모두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주요 차이점인 자기탐색의 위기를 극복했는가 또는 생략했느냐의 여부는 자기 인생을 회상한 이야기의 주제구조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정체획득형의 경우, 자기탐색의 과정을 겪으면서 주제와 모순되는 경험들을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주제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고 통합하므로,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비교적 복잡한 주제구조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체폐쇄형은 자기이론을 일종의 규범처럼 철저히 고수하고자 자기이론에 부합되는 내용만 회상함으로써, 매우 단순한 주제구조가 예상된다. 주제와 모순되는 경험들은 혹 기억된다 하더라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재조직되지 않고 주제와 연결되지 않은 고립체로 회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정체획득형과 정체폐쇄형은 회상의 질적 측면인 주제구조 상에서는, 주제와 모순되는 경험들이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재조명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고립체로 회상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드러날 것으로 가정된다. 이는 물론 회상의 개인차에 대한 질적 분석(Patton, 1990)을 근거로 경험적으로 밝혀야 할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3.1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자전적 기억의 의미를 삶의 주제와 자아정체를 중심으로 주로 인지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정체유형과 주제응집성의 관계에 대한 가정은 결국 경험해석의 틀이 확립되어 있고 정교할 경우에 기억의 진실성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감정의 흐름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자전적 기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현재의 행복감이나 우울의 기분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의 영향 (Seidlitz & Diener, 1993), 나아가 암암리에 혹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동기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Freud(1901)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관찰되는 망각현상을, 갈등을 유발시키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의식화되는 것을 억압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자아방어의 결과로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거경험의 망각은 인지구조의 부재로 인하여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과거경험을 떠올림으로써 재경험될 고통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의 동기적 설명은 자전적 기억을 조망하는 시각을 넓혀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자전적 기억의 경우 자신이 정보처리의 주체(self as processing agent)인 동시에 객체(self as processed object)이기 때문에(Greenwald & Pratkanis, 1984), 자

기관련 동기들(self-motives, Berkowitz, 1988) 예컨대, 자기존중(self-esteem)이나 자기높임(self-enhancement)의 동기들이 기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자기관련 동기는 일종의 사회적 동기로서, 감정적 색채를 띤 인지적 구성체(an affectively-toned cognitive cluster)로 간주되는데(McAdams, 1982), 궁극적으로 자기보존을 위해 작용한다. 이러한 동기들이 강하게 작용할 때, 떠오른 기억내용과의 불일치를 감수하면서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상대방에게 드러낼 뿐 아니라(Strube, 1987), 정보표상과정에서부터 선택적으로 정보를 떠올리거나, 떠올린 내용을 객관적인 진실로서(마치 실제로도 그러했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회상된 내용이 인생의 주제에 의한 재구성인지, 아니면 자기보존동기에 의한 기억의 왜곡인지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진다. 동기적 관점에서 자전적 기억을 조망할 때는 오히려 일관된 의미의 흐름으로 인생사를 엮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보존 동기의 한 표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전적 기억의 의미는 적응가치를 중심으로한 기억의 주관적 진실성 속에서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무엇을 위하여 자기 과거를 되돌아 보는가 하는 질문은 자전적 기억의 의미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 수연(1990). 텍스트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학습책략: 사전조직문 및 질문의 자가생성의 정교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2, 75-89.

Barclay, C. R.(1986). Schematiza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y. In D. C. Rubin (Ed.) *Autobiographical mem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rkowitz, L. (1988). Introduc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1: Social psychological studies of the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Berzonsky, M. D.(1988). Self-theorist, identity status, and social cognition.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y: Integrative approaches.* New York: Springer.

Brewer, W.P.(1986). What is autobiographical memory?. In D. C. Rubin (Ed.), *Autobiographical mem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own, R. & Kulik, J.(1977). Flashbulb memories. *Cognition, 5,* 73-99.

Claparède, E.(1911). Recognition and "meness". In D. Rapaport (Ed.), *Organization and pathology of though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Original French publication, 1911.)

Cohen, G.(1989). *Memory in the real world.* Hillsdale: Erlbaum.

Conway, M. A. & Bekerian, D. A.(1987). Organization in autobiographical memory. *Memory and Cognition, 15,* 119-132.

Conway, M. A.(1990). *Autobiographical memory: An introduction.*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Conway, M.A.(1991). In defence of everyday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46(1),* 19-26.

Craik, F. I. M. & Lockhart, R. S.(1972).

Levels of processing: A framework of memory research.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1*, 671-684.

Csikszentmihalyi, M. & Beattie, O. V.(1979). Life them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 of their origins and effect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9*, 45-63.

Eric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Fitzgerald, J. M. & Lawrence, R.(1984). Autobiographical memory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Gerontology, 39*, 692-698.

Freud, S.(1901). *The psychopathology of everyday life.* In A. A. Brill (trans.) New York: Macmillan, 1917 (Original German Publication, 1901).

Gergen, K. J. & Gergen, M. M.(1988). Narrative and the self as relationship.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1: Social psychological studies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Giorgi, A. (1989). Learning and memory from the perspective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In R. S. Valle & S. Hall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New York: Plenum Press.

Greenwald, A. G.(1980). The totalitarian ego. *American Psychologist, 35*, 7, 603-618.

Greenwald, A. G.(1981). Self and memory. In G. H. Bower (Ed.),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vol.15*, 201-236, New York: Academic Press.

Greenwald, A. G. & Pratkanis, A. R.(1984). The self. In R. S. Wyer & T.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3*, 129-178. Hillsdale: Erlbaum.

Groeben, N., Wahl, D., Schlee, J., & Scheele, B.(1988). *Forschungs-programm Subjektive Theorien: Eine Einführung in die Psychologie des reflexiven Subjekts.* Tübingen: Francke Verlag.

Holding, D. H., Noonan, T. K., Pfau, H. D., & Holding, C.(1986). Data attribution, age and the distribution of lifetime memories. *Journal of Gerontology, 41,* 481-485.

Kelly, G. A.(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Kihlstrom, J. F.(1981).On personality and memory. In N. Cantor & J. F. Kihlstrom (Eds.), *Personality, cognition and social interaction.* Hillsdale: Erlbaum.

Kihlstrom, J. F., Cantor, N., et al. (1988).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study of the self.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1: Social psychological studies of self,* N.Y.: A.P..

Larsen, S. F.(1992). Personal context in autobiographical and narrative memories. In M. A. Conway, D. C. Rubin, H. Spinnler, & W. A. Wagenaar (Eds.), *Theoretical perspectives on autobiographical memory,* 53-71,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cation.

Linton, M.(1982). Transformations of memory in everyday life. In U. Neisser (Ed.), *Memory obsered: Remembering in*

natural contexts.(p. 77-91) San Francisco: Freeman.

Linton, M.(1986). Ways of searching and the contents of memory. In D. C.Rubin (Ed.), *Autobiographical mem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cia, J. 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 551-558.

McAdams, D. P.(1982). Experiences of intimacy and power: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motives and autobiographical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2, 292-302.

Markus, H.(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2),* 63-78.

Neisser, U.(1982). Memory: What are the important questions? In U. Neisser(Ed.), *Memory observed: Remembering in natural contexts.* (pp. 3-19). San Fransisco: F&C.

Neisser, U.(1986). Nested structure in autobiographical memory. In D. C. Rubin (Ed.), *Autobiographical mem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imeyer, G. J., & Rareshide, M. B.(1991). Personal memories and personal identity: The impact of ego identity development on autobiographical memory reca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 562-569.

Nigro, G. & Neisser, U.(1983). Points of view in persaonal memories. *Cognitive Psychology, 15,* 467-482.

Noam, G. G.(1988). The self, adult development, and the theory of biography and transformation. In D. K. Lapsley & F.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y: Integrative approaches.* New York: Springer.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Beverly Hills, CA: Sage

Read, S. J. & Rosson, M. B.(1982). Rewriting history: The biasing effects of attitudes on memory. *Social Cognition, 1,* 240-255.

Reiser, B. J., Black, J. B., & Abelson, R.P.(1985). Knowledge structures in the organization and retrieval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Cognitive Psychology, 17,* 89-137.

Robinson, J. A.(1976). Sampling autobiographical memory. *Cognitive Psychology, 8,* 578-9.

Rogers, T. B., Kuiper, N. A., & Kirker, W. S.(1977). Self-reference and the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77-688

Ross, M. & Conway, M.(1986). Remembering one's own past: The construction of personal histories.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Rubin, D. C. & Kozin, M.(1984). Vivid memories. *Cognition, 16,* 81-95.

Rubin, D. C., Wetzler, S. E., & Nebes, R. D.(1986). Autobiographical memory across

the life span. In D. C. Rubin (Ed.) *Autobiographical mem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Rumelhart, D. E. (1980). On evaluating story grammars. *Cognitive Science, 4,* 313-316

Seidlitz, L. & Diener, E.(1993). Memory for positive versus negative life events: Theories for the differences between happy and unhappy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4, 654- 664.

Skowronski, J. J., Thomson, C. P., Betz, A. L., & Shannon. L.(1991). Social memory in everyday life: Recall of self-events and other-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 831-843.

Strube, G., (1985) Knowing what's going to happen in life: I. A model of biographical knowledge; II. Biographical knowledg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Max Planck Institut for Psychological Research, Unpublished Manuscript Nr.13 & 14: München.

Strube, G. (1987). Answering survey questions: The role of memory. In H.J. Hippler, N. Schwarz, & S. Sudman (Ed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survey methodology.* New York: Springer.

Strube, G. & Weinert, F. E. (1987). Autobiographisches Gedächtnis: Mentale Representation der individuellen Biographie. In G. Jütteman & H. Thomae (Eds.), *Biographie und Psychologie.* Berlin: Springer.

Thomson, C. P.(1985). Memory for unique personal events: The roommate study. *Memory and Cognition, 10,* 324-332.

Tulving, E.(1989). Memory: Performance,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European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1,* 3-26.

Valle, R.D., King, M., & Halling, S. (1989). An introduction to existential-phenomenological thought in psychology. In R. S.

Valle & S. Hall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New York: Plenum Press.

Van Dijk, T. A. (1980). *Macrostructures.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global structures in discourse, interaction and cognition.* Hillsdale, NJ: Erlbaum.

韓國心理學會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993, Vol. 12. No. 1, 1-18

Autobiographical Memory: New Questions for the Study of Memory

Soo-Youn Kim

Korea university

The implications of the emergence of autobiographical memory research are viewed as an effort to study memory in context of real life world and personality. The current researches on autobiographical memory are reviewed in terms of memory types, its determinants, memorability across the life-span, schematization processes, and its hierarchical structure. This article conceptualizes autobiographical memory as reconstructed narratives on self and one's own life history and emphasizes its parameter as thematic coherency and integratedness as a meaningful whole, which is subjectively experienced as ego-strength. The significance of this parameter is viewed as reflecting the effects of self-relevant factors, such as self-knowledge, self-motives, and ego-identity status, which are vital to the adaptation to life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